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
톰 라이트 /
김소영 옮김 / IVP

친구에게

정말 오랜만일세. 친구에게 편지를 쓰지가 말이야.

방금 '거짓 신들에 맞서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부제의 책을 읽었어.

오랜 만에 참신하고 힘겨운 생각에 빠져드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믿음의 번민, 회의를 나누던 때가 떠오르며 친구가 그리워지네.

저자인 톰 라이트는 한쪽 주머니에 우수한 전문 자질, 또 다른 한쪽에 주일학교 신앙을 가지고 일하러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일갈하며, 복음과 사회적 행동이 아우르지 않으면 '가짜'라고 혹독하게 말하네. 지난 시간, 이런 저런 사회적 참여의 욕구를 믿음의 양심과 행동이라는 갈등으로 구분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무안

해졌어. 아마도 그 때는 과격한 행동이 교회와 복음에만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지지해주었다는 생각이긴 해.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하긴 사회 참여라는 구분조차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네. 교회의 모습이 염려스럽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사회와 산업의 맥락으로 보자면 보잘 것 없는 변화이지 않겠나?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잖은가. 그동안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고, 가족, 사회 구성원, 직업, 산업, 주거형태, 교통수단 등 우리가 겪은 변화는 아찔하지 않나. 친구가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자네 얼굴도 목소리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으니 기술의 발달이 고맙긴 해.

그런데 말일세, 오늘은 이런 모든 변화와 지금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네. 우리가 이렇게 경이로운 삶을 살다보면 믿음을 위해 목상하는 것은 어떤 양태가 될지 급작스레 걱정이 되네. 일상을 돌아볼 필요도 없이 컴퓨터에 쌓이는 빅 데이터가 곧 삶의 예상치를 제공한다고 말일세. 친구야, 생각해 봐. 우리 애들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빅 데이터의 정확도가 겨루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네. 친구야, 지난 시간 우리가 삶을 나누며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며 시간을 함께 하던 때가 그리워.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함께 복음을 새기고 느끼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자. 이제 보니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진짜 걱정 아니겠나?

아무리 세상은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좋다면 날마다 더 짜릿한 감각으로 우리를 뒤흔들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천하무적 아니겠나? 괜한 사족 길어서 미안하이.

늘 건강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온전히 세상에는 속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자구.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네. 자네도 이 책 한 번 읽어보게나. 내 이야기 들려주어 고마우이.

친구와 나누고 싶은 말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 그분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짙은 안개와 회오리바람을 뚫고 산길을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방향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나침반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목상하면 견고해질 것이다. _p.312